



유럽 대형은행의 미국 사업전략 변화

이아름 연구원

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(Fed)는 2014년 2월 18일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대형 은행들에게 미국 대형 은행들과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킴.¹⁾

- 이로 인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Barclays, Deutsche Bank, Credit Suisse, UBS 등 총자산 500억 달러(약 53조 원) 이상의 대형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자본금, 유동성, 레버리지 규제와 연준의 연간 스트레스테스트(재무건전성 심사)가 의무화됨.
-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미국에서 영업하는 중간지주회사에 설치해야 하고 미국에 상주하는 최고 리스크관리자(CRO)를 임명하여 외국계 은행이 미국 방식의 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
■ 미국 연준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로 독일 최대 은행인 Deutsche Bank는 미국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였음.

- Deutsche Bank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70억 달러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.²⁾
- Morgan Stanley에 따르면, Deutsche Bank 총자산 중 미국 법인의 보유자산 비중은 37%이며, 미국 내 외국계 은행의 규제 강화로 이의 1/4 수준을 감축할 계획임.
 - 현재 Deutsche Bank 미국 법인의 총자산은 4,000억 달러 수준이며, 향후 1,000억 달러(약 107조 1,500억 원)를 감축할 예정임.
- 특히, 자본 집약적이면서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매조건부채권(repo) 사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.
 - Deutsche Bank는 단기 환매조건부채권 사업이 헤지펀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었지만 미국 내 고객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겠다고 언급함.

1) 이아름(2014), 「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」, KIRI Weekly, 보험연구원.
 2) 한국금융연구원, 「미국내 대형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」, 주간 금융브리프.

- Deutsche Bank는 미국 법인이 발행한 기존 채권 중 일부를 독일 법인의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전환할 예정이고, 유럽의 레버리지 비율 기준 충족을 위하여 60억 유로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.

■ 또한 Barclays, BNP Paribas, Société Générale 등 다른 유럽계 은행들도 미국 연준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 사업전략을 수정하고 있음.

- Barclays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Barclays가 그동안의 수익으로 새로운 규제하에서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고 미국 외 다른 국가로의 사업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예상함.
 - Morgan Stanley에 따르면 Barclays 미국 법인의 자본금은 미국 연준 규제안에서 요구하는 자본금보다 100억 달러 부족함.
- BNP Paribas는 미국 연준의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BNP Paribas의 미국 소매은행 지사인 BancWest와 미국 투자은행과 결합하여 자본금 확충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.
- 또한 Société Générale도 미국 연준의 규제 강화로 유럽계 은행의 미국 내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.

■ 유럽계 대형 은행들은 미국 법인의 사업 중 일부를 유럽과 아시아 사업부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.

- Deutsche Bank는 미국 내 환매조건부채권 사업 등 일부 자산을 멕시코나 독일 프랑크푸르트, 일본 도쿄 등으로 이전할 계획임.
- Société Générale도 최근 아시아에서 채권거래 사업 등 투자은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Deutsche Bank와 같이 미국 법인 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로 편입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함.

(FT, WSJ 등)